

“입국 6개월 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지난 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중로지사 상담창구 모습/연합뉴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날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6개월 한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다.

기존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건보 먹튀'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 체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직

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겐 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어도 한국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간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건보당국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



▲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가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4일 '경향신문'은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올해 빌라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은 70.7%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과거 5년 평균은 전세와 월세(51.8%) 비중이 비슷했지만 이제는 월세가 10건 중 7건을 차지하고 있다.

빌라의 월세화는 2022년 말부터 대규모로 터진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이 폐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보증금의 150%에서 126%로 강화한 것도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비중은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넷째주(3월25일 기준) 0.02% 상승하며 36주 연속 뛰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2.2%(2월 기준)다. 2022년(38.8%)보다는 아직 높지만 지난해(43.9%)보다는 낮아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빌라는 전세가 올때마다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서 강통전세 우려가 아파트보다 크다"며 "다달이 은행에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것이냐, 집주인에게 월세로 낼 것이냐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서 '빌라 월세, 아파트 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하면 인센티브 6억

서울시교육청이 관내의 남학생이나 여학생으로만 이뤄진 단성 중·고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학교당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서울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수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런 내용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 708곳 가운데 단성 학교는 241곳(34.0%)이다. 중학교는 390곳 중 90곳(23.1%), 고등학교는 318곳 중 151곳(47.5%)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한다. 공학 전환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등 상당인력 채용에 활용하도록 인건비로 학교당 3년간 총 9000만원을 준다. 기존에 교육청이 지원하던 화장실 개선사

업비(탈의실·보건실 포함)도 계속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단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학생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불편이 발생해서다.

더욱이 단성학교 비중이 높으면 그 지역 남녀공학 학교에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 경우 학생·학부모가 진학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학생 쏠림이 심화하면서 최근에는 학교 신설 대신 남녀공학 전환이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장충고 등 5개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데 이어 올해도 여고였던 3개 학교(미림마이스터고·염광메디텍고·화곡보건경영고)가 처음 남학생을 받았다.

테메쿨라 한인 치과 오픈!

TOWN CENTER DENTAL

·타운 센터 덴탈· 무료상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T.951.693.9595

29700 Rancho California Rd. STE G5, Temecula, CA 92591
Mon - Wed, Fri. 9:00AM - 6:00PM

GRAND OPENING

임플란트
\$1,200
부터